

### TFT LCD 백라이트 인버터 양산

단양전자통신

전원공급장치 생산업체인 단양전자통신(<http://www.danam.co.kr>)은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백라이트용 인버터를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6개월동안 2억원을 들여 개발한 인버터는 원가절감을 위해 기존 TFT LCD 백라이트용 인버터와 달리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가 아닌 바이폴라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전용 컨트롤러 대신 자체 설계회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단양전자통신은 LG전자와 KDS에 이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삼성전자 등으로 거래선을 늘려 올해 인버터로 2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 가전 쿠바에서 인기

대우전자

워크아웃중인 대우전자의 TV 냉장고 등 수출상품이 '카리브해 고도' 쿠바에서는 갈수록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뿌려 놓은 씨들이 뒤

늦게 꽃을 피우는 형국이다.

대우는 지난해 이곳에서 5백만달러어치를 판매한데 이어 올 들어선 2월 중순까지 5백만달러어치의 주문을 받았고 연말까지 3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V와 냉장고를 7만대씩 수출키로 계약했으며 올해말까지 각각 10만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회사관계자는 말했다. 대우는 이러한 수출 확대에 따라 이 나라 수도 아바나의 1급 호텔인 코파카바나 미라르 샤토 미라바라 등의 객실에 자사의 TV냉장고 에어컨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바나시 생필품 공급원인 예술공전앞 도깨비시장에선 자사 제품이 부르는게 값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이웃 나라인 파나마 판매법인을 통해 쿠바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파나마 법인은 5년전게 쿠바정부의 공개 경쟁입찰에 첫 참여한 것을 계기로 시장에 뛰어 들었다.

### 중, 심양공장 완공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가 연간 180만대의 PC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 심양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

간다.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은 2월 24일 모수신 심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양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삼보컴퓨터 심양공장은 연간 240만장의 주기판과 180만대의 PC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삼보컴퓨터는 이에 따라 97년에 설립한 중국 허문공장(120만대)과 지난해말 설립한 유럽공장(130만대), 국내 안산공장(650만대)을 포함해 연간 생산능력이 총 1080만대에 달하는 세계적인 PC 생산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 회사는 이번 심양공장 준공을 계기로 오는 8월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 연말까지 중국시장 점유율 10위권에 진입할 계획이다.

### 인터넷 기업 '변신'

삼성SDI

브라운관업체인 삼성 SDI(<http://www.samsungsdi.co.kr>)가 인터넷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신규사업 발굴 전담팀인 MBF팀을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MBF는 밀레니엄사업개척자

# News

## 국내업계소식

(Millennium Business Frontier)의 준말이다. 팀 이름에 삼성 SDI의 차세대 사업을 집중 발굴해 사업화한다는 임무가 배어 있다.

인력은 6명으로 기획·재무·마케팅·인터넷·바이오 등의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끌어모았다. MBA 출신 미국인도 눈에 띈다. 이 팀은 인터넷을 통해 사내의 인력을 추가로 뽑아 10명 안팎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MBF팀은 빠른 조직운동을 위해 팀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구성했다.

근무시간이나 복장은 자유며 사무실도 벤처거리로 바뀐 테헤란밸리에 둘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 팀은 사업참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 하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면 어떤 사업이든지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세기의 화두인 인터넷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과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사업형태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업팀을 구성해 독자추진할 수도 있고, 유망 벤처기업과 합작할 수도 있으며 벤처캐피탈 형태로 자본투자도 가능하다.

이처럼 MBF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기존 조직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파괴」할 예정이다.

이 팀의 활성화를 위해 삼성 SDI는 유망 컨설팅업체와 해외 사업장은 물론 기술원·전자·정밀화학·물산·삼성벤처투자 등 삼성 계열사와 외부기관, 학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무선 AV송수신기 양산

#### 삼성전기

삼성전기(<http://www.sem.samsung.com>)가 2.4GHz의 무선 영상·음성(AV) 송수신기를 3월부터 양산한다고 밝혔다.

AV송수신기는 지난해 7월께 삼성전기가 핵심부품을 국산화한 것을 계기로 개발에 착수, 이번에 양산하게 된 제품으로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해 왔다.

송수신기와 수신기가 한 세트 구성인 이 제품은 컴퓨터·감시카메라·캠코더 등에서 채록된 영상·음성 데이터를 무선으로 반경 100m안에 설치된 모니터나 TV에 전달하는 장비다.

이 제품은 오디오·비디오·단자가 있는 제품이면 어디에나 손쉽게 연결,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고객이 붐비는 백화점이나 아파트, 산업체의 감시카메라에 적용할 경우 기존 유선제품보다 경제적이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기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제품은 소모전력이 650mW에 불과해 1300mW이상의 소모 전력이 필요했던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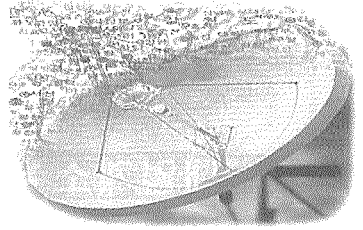
### 7개 디지털 사업에 32조 투자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는 2005년까지 메모리반도체 등 7개 디지털사업 분야에 총 32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견회 회장 주재로 「디지털 전략회의」를 열고 메모리반도체와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를 비롯해 △IMT2000 단말기 및 시스템 △이동전화 △디지털TV △모니터 △프린터 등 7개 사업 분야에 32조원을 쏟아붓는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D램, S램 등 메모리반도체에 20조원을 투자하며 플래시 메모리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TFT LCD와 이동전화에도 각각 5조원과 3조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01년까지 IMT2000 단말기 및 시스템을 개발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한편 디지털 TV에도 6000억원



을 투자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는 2001년 까지 LCD모니터 시장 세계 1위를 달성하고 디지털 TV, IMT2000, 프린터 등 3개 품목도 이른 시일안에 세계 1위에 오를 방침이다.

### cdma2000 분야 '협력'

삼성전자

삼성전자(<http://www.sec.co.kr>)가 미국의 통신장비전문 업체인 스리콤(<http://www.3com.com>)사와 북미방식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인 cdma2000장비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두 회사는 지난달 23일 호텔 신라에서 천경준 삼성전자 통신연구소장과 어팬알리(Irfan Ali) 미국 스리콤사 캐리어사업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cdma2000 DCN(Data Core Network)」시스템 공동 개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하반기부터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송속도 14Kbps급 보다 수십배 이상 빠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게 돼 IMT2000사업을 앞당길 수 있

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콤 측도 전세계 삼성전자 유통망을 통해 DCN 장비를 구성하는 PDSN(Packet Data Serving Node), PDGN(Packet Data Gateway Node), 인증시스템 및 망관리 SW등을 전세계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 21인치 완전평면 CPT개발

오리온전기

오리온전기(<http://www.orion.co.kr>)는 21인치 완전평면 컬러 TV용 브라운관(CPT)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9인치 완전평면 CPT를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 21인치 제품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평면브라운관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

오리온전기의 21인치 완전평면 CPT는 고정세 새도마스크와 대구경 전자총을 채택해 화면 중앙과 코너 모두 우수한 해상도를 나타낸다. 또 열팽창의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틴트글라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변부 밝기저하 현상을 없앴다.

오리온전기는 최근 가진 품평회에서 이처럼 성능의 우수성을 확임함에 따라 기술보완과 시험생산을 거쳐 올해 말께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양산규모는 50만개 수준이다.

오리온전기는 또 32인치 제품도 막바지 개발중으로 다음달께 양산에 들어갈 29인치 제품과 아울러 21인치·32인치 등 완전평면 CPT에 대한 제품 구색을 올해안으로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8배속 DVD롬 드라이브 개발

LG전자

LG전자는 최근 8배속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롬 드라이브 (모델명DRD 8080B)를 개발 판매에 나섰다.

이 제품은 초당 데이터 전송속도가 1만800kB며 평균 탐색시간은 120ms다. 이 제품은 또 윈도우95와 98, NT는 물론 리눅스와도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며 D계열과 CD롬 계열 디스크 재생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디스크가 고속회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오토밸런싱 장치를 채택해 진동없이 고속재생이 가능하고 수평·수직장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전세계적으로 DVD롬 드라이브가 지난해 보다 두배 정도 늘어나 1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PC공급

# News

## 국내업계소식

업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중국에 CDT공장 건설

LG전자

LG전자는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1억3000만달러를 투자, 15인치와 17인치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공장을 신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중국 창사공장(LGESG) 인근에 건설할 CDT 공장은 연산 160만개 규모이며 내년 상반기중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LG전자는 이미 가동 중인 연산 350만개 규모의 컬러 TV용 브라운관(CPT)공장과 오는 8월께 완공할 120만대 규모의 대형 평면 CPT공장에 이어 CDT공장까지 신설할 경우 중국 브라운관시장을 집중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에 CPT와 CDT공장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이번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내년에는 19인치와 21인치 대형 CDT공장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며 화면비율 16대9의 와이드 TV용 CPT공장도 아울러 증설할 계획이다.

### DSL MUX 개발

LG정보통신

개인통신 사용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신 장치 및 단말기를 개발,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최근 디지털 광가입자 전송장치(FLC:Fiber Carrier Loop)에 설치해 일반 가입자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대칭디지털 가입자 회선(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용 다중화장치(MUX)를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섰다.

DSL MUX는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FTTO(Fiber To The Office) 및 FTTC(Fiber To The Curb) 등 수요 밀집지역의 광가입자망을 이용해 고품질 서비스와 통합관리까지 가능케 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시설투자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특히 이 장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전송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비동기전송모드(ATM)를 사용함으로써 대용량 고속 데이터 전송은 물론 기존의 패킷 통신까지 지원, 다양한 망설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DSL, MUX는 일반 전화선을

이용해 음성은 물론 32Kbps~8Mbps급 디지털 데이터를 동시에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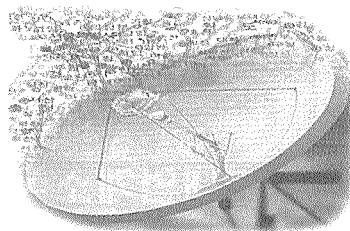
따라서 문자뿐만 아니라 동영상·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음성과 분리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전화와 인터넷 접속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치는 빌딩이나 아파트 지역에 설치되는 FLCRT(Remote Terminal) 시스템에 설치해 사용되는 모국용 장치와 일반 가입자들이 PC에 연결해 쓰는 자국용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 가입자가 사용하는 자국용 장치는 PC용 LAN카드와 연결해 사용하는 외장형과 PC에 직접 실장해 사용하는 카드형 등 2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ADSL 장비는 인터넷을 통해 문자·동영상·오디오 등 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정으로 1.5~8Mbps급 고속 신호를 사용한다.

또 전화국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64Kbps~1Mbps 신호를 사용하는 비대칭 전송 특성을 가진다.



## T1급 TCD 상용화

케이존

비동기전송모드(ATM) 교환망 및 E1(2Mbps), T1 (1.544 Mbps)급 전송 속도의 통신망에서 GPS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표준동기신호를 확대 생성·분배해 주는 장치가 국산 기술로 개발됐다.

통신 벤처기업인 케이존(<http://www.kz.co.kr>)은 지난 1년간 약5억원의 개발비를 투자,

ATM망,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 등의 고속데이터 전송에 필수적인 동기신호분배장치(Time Clock Distributor, 모델명 「TCD2000」)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동기신호분배장치(TCD)는 △상위국(한국표준과학연구, 한국통신)등으로부터 동기기준신호(Clock)를 분배하는 방식△GPS수신장치를 통한 1계층(Stratum) 타이밍 정보를 분배하는 방식 등 2가지 방식을 동시에 수용한다.

특히 이 장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의 보드상에서 구현하면서 개별장비를 통해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한 기존 외국제품과 차별화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시각 정보를 실어 전송하고 이를 참고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신망의 특성에 따라 통신 분야의 필수장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흔히 DOTS(Digital Office Time Supplier)로 불린다.

케이존의 장비는 종전까지 개발된 외국 제품과 비교할 때 약 30% 수준의 가격대에 공급될 계획이며 외국 제품에는 없는 소형 동기신호분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소형 ATM망 및 교환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 전자부품 구매 사이트 운영

필코전자

콘텐츠·저항기 전문업체인 필코전자(<http://www.pilkor.com>)는 영세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부품 구매 사이트인 사이버필코(<http://www.cyberpilkor.com>)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개설되는 사이버필코를 통해 자사가 생산하는 각종 콘덴서와 저항기, 칩부품 등 전품목을 판매할 방침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필코의 운영으로 영세업체들이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자사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업체 호응도에 따라 국내업체에 한정된 사이버필코의 구매서비스를 해외업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박형 PDP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두께 1cm 내외의 초박형 평판표시소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그림액자와 같은 벽걸이 TV가 조만간 실용화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http://www.kist.re.kr>)정보소자 연구센터 주병권·오명환 박사팀은 최근 광운대 최은하 교수, 오리온전기 평판연구실과 산·학·연 협동으로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정전 열접합 방식의 PDP튜브리스 패키징기술을 개발, 두께 8mm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을 제작해 이를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PDP 등 진공표시소자들은 유리 사이에 배기용 세관을 부착해 패널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후 외부에서 열을 가해 세관을 녹이는 패키징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패널두께가 2~3cm 이상이고 여기에 구동회로 등을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벽걸이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어

# News

## 국내업계소식

려움이 많았다.

연구팀이 이용한 정전 열접합은 유리기관 내부에 포함된 나트륨이온(Na<sup>+</sup>)과 칼륨이온(K<sup>+</sup>) 등을 외부 전기장에 의해 접합면의 반대편으로 이동시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전하공핍층에 의한 정전력을 이용하는 접합기술이다. 특히 접합시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PDP내부의 청정도와 진공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3.6인치 PDP 시제품을 완벽하게 구동했으며 기존 방법(10<sup>-2</sup>~10<sup>-3</sup>Torr)보다 높은 진공(10<sup>-3</sup>~10<sup>-4</sup>Torr)을 실현해 약 100배 이상의 컨덕턴스(단위 시간당 통과할 수 있는 입자량)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진공접합방식은 배기용 세관절단시 유리 용융온도인 600~700도의 고온이 필요하고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산소 가스들이 진공도를 악화시켜 전자방출원을 파괴해 구동전압이 증가하거나 색상이 불안정한 원인을 제공해 왔다.

### 압착단자 사업 강화

한국몰렉스

한국몰렉스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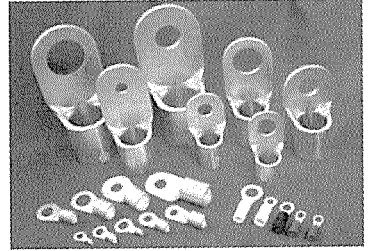
라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올해 압착단자에 대한 영업력을 한층 강화시킨다.

한국몰렉스의 압착단자는 98년 말 국내 최초로 동선용 압착단자의 한국산업규격(KS C 2620)획득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이래 정부, 관공서 및 서울 지하철 공사, 인천 신공항 전기 공사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외에도 수출하는 KS, JIS, UL, CSA, TUV인증을 획득한 규격품이다. 이제까지 수출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내수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앞지름에 따라 올해 내수와 수출 모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S획득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내수 판매는 이미 한전 변압기 및 고속철도 신규 프로젝트의 적용이 예정된 상태이며, 올해 말 100% 이상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부족했던 생산라인이 구비됨에 따라 큰 폭 확대가 기대되는 수출은 향후 3년 내 월 수출 10억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나 차차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한국몰렉스의 압착단자는 KS, JIS에 규정되어 있는 C1020 P(무산소동)을 소재로 사용, 전기적 특성인 도전율이 100%이며 이 가운데 100sq~325sq는 BAg(은납)으로 Brazing(땀납)함



으로써 전기 전도도 및 결합력이 좋아 압착이나 충격에도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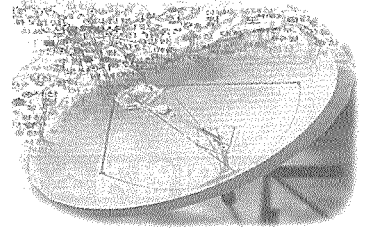
### 유닉스사업 대폭 강화

한국 IBM

한국IBM이 인터넷 시장을 목표로 사업부를 확대 개편하고 제품라인업을 대폭 보강하는 등 유닉스 사업을 크게 강화한다.

한국IBM 유닉스사업본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주력제품인 RS/6000시스템 이외에 지난해 인수한 씨퀀트사의 누마-Q와 출시예정인 인텔칩 기반의 몬트레이 유닉스, 리눅스 관련사업을 전담함에 따라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서버용 제품군을 강화하기 위해 최상위 슈퍼컴퓨터로 활용되는 RS/6000 SP 2종과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은 물론 웹서버로 활용할 수 있는 로엔드 서버 2종(모델명 RS/6000 170/270) 등 지난해말부터 선보



이기 시작한 구리프로세서를 탑재한 4종의 서버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IBM은 새로 출시될 RS/6000SP가 동종 제품에 비해 성능이 70% 향상된데다 가격경쟁력까지 갖춰 슈퍼컴퓨터 시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력 워크스테이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RS/6000 170/270도 그래픽 업무처리 능력이 이전 모델보다 배 이상 향상된데다 벤치마크에서 1359명 동시 접속을 기록하는 등 웹 서버로도 손색이 없어 인터넷 서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DMA단말기 600만대  
미에 수출**

현대전자

현대전자(<http://www.hei.co.kr>)는 최근 미국 최대의 이동전화단말기 공급회사인 오디오박스(AudioBox)에 향후 2년간 600만대 규모의 CDMA 단말기 수출하기로 했다.

총 12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번 대규모 수출계약은 국내 단말기 수출 사상 단일계약으로 는 최대 규모다.

미국 내 CDMA 단말기 공급업체 중 시장점유율 2위인 오디오박스는 현재전자로부터 공급받은 CDMA 단말기를 미국 유수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프라임코(PrimeCo), 벨애틀랜틱 모빌(Bell Atlantic Mobile), 에어터치(Air Touch), GTE, USU(U.S.Unwired), MCI월드컵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전자는 지난 98년 오디오박스와 CDMA 단말기 공급계약을 맺은 이래 미국 내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에 디지털 이동전화 및 PCS 단말기를 대량 공급해 왔으며 PCS 단말기 모델인 「PCX-1000」의 경우에 지난해 한 해 동안 100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또 99년 7%던 미국 단말기 시장점유율은 이번 대규모 단말기 공급계약 성사로 16%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CDMA 단말기 수출을 개시한 이 회사는 98년 미국에 약 50만대를 판매한 데 이어 지난해에

는 총 250만대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800만대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오디오박스에 공급하기로 한 트라이 모드폰은 세계적으로 2, 3개 단말기 제조업체만이 개발에 성공해 올해 본격 출시될 최첨단 제품이며 하나의 단말기로 아날로그와 800MHz대의 디지털, 1.9GHz대의 PCS 등 3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웹폰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데이터 서비스가 늦은 미국 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기존 동급 기능의 대형 단말기에 비해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초소형 제품으로 음성통화는 물론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각종 정보의 검색 및 전자우편 송수신도 가능하다.

현대전자는 이번 미주 지역에 대한 대규모 CDMA 단말기 수출외에도 에어터치에 PCS 기지국 장비를 장기 공급하는 등 CDMA 서비스가 실시되는 해외 지역 대상의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향후 영상통신이 가능한 IMT2000 전용 단말기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